

전북대, 혁신 추진 ‘결실’

대학평가서 연구·교육여건·학생분야 성과 돋보여
교수 연구력 전국 상위권… 연구 인프라 확충 노력
학생 교육여건도 강화… AI 기반 혁신으로 학습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발표된 202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수 연구 경쟁력과 학생성과, 교육여건 등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거점국립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 처음 중장기 발전 정도를 분석한 ‘성장 대학 평가’에서는 전국 6위에 올랐다. 2일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벌 Top100 우수 학문분야 육성을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 혁신과 학생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교수 연구력이다. 전북대는 교수당 외부연구비 거점 국립대 1위, 교수당 자체 연구비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최근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반도체공동연구소, 대형 국책사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연구 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학생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학부 중도포기율은 4.27%에서 3.89%로 낮아지며 순위가 12계단 상승했고,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율 역시 뚜렷하게 감소하며 13계단이나 올랐다. 더불어, 순수취업률과 대학원 진학률도 모두 상승했고, 창업지원액도 46억원 이상 증가하며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기·전방위 창업지원을 지속해 온 결과다. 이 밖에도 졸업생의 정치·행정, 경제, 법조, 학계 진출 등을 반영하는 ‘사회영향력’ 지표이 10계단 오르며 졸업생 평판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교육여건 또한 나아졌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가 전년대보다 증가해 순위가 4계단 올랐고, 학생 1인당 장학금과 외부 경력 교환 비율, 기부금

비율 등 대부분의 교육여건 지표가 상승했다. 최근 학생타운 신축과 중도 및 인터내셔널라운지 조성,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장학금 확대 등 학생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과,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인 AI 튜터를 도입해 학생의 학습·진로 지원, AI 기반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전용 실험형 교육공간인 ‘AI스페이스’ 등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그동안 약점으로 작용했던 평판도가 개선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학부도 진학 선호 대학’ 순위가 34위에서 26위로 크게 뛰었는데, 이는 AI 기반 교육 개편, 학생지원 플랫폼 신설, 지역·국가 전략사업과 연계한 미래학과 신설 등이 신뢰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양오봉 총장은 “연구력, 교육여건, 학생성과가 모두 좋아졌다는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진해 온 혁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 투자와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TOP100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추진한 '2025 태권도 체험·창작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무주군, 태권도를 디자인하다’

전주대 태권도학과, ‘체험·창작 굿즈 아이디어 공모’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태권도학과가 추진한 ‘2025 태권도 체험·창작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무주군, 태권도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태권도의 교육적·예술적 가치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한 창의적 굿즈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결선에 오른 10

개 팀이 발표를 진행, 대상은 ‘도복, 다시 피다 : 업사이클링 도복 굿즈(DO:SIM)’가 수상했다. 사용이 종료된 도복을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생활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로, 지속가능성·디자인성·태권도 상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9일 AI혁신
추진위원회 출범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9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당대 W-SKY 23에서 ‘AI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석의 도전, AI의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출범식은 우석대가 AI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학 구성원들이 AI를 모든 교육·행정 플랫폼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문태 대외협력부총장 겸 AI혁신추진위원장이 추진 경과 및 방향’을 발표하고, 기획전략·교육체제·시스템도입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이 분야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RISE 기반
지역 통합돌봄 연구 ‘우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물리치료학과 캡스톤디자인 연구팀 ‘비전 퍼지오’가 최근 열린 (사)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 우수논문 경연 본과에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는 RISE 스마트헬스케어사업단(단장 김진영 교수)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모델을 실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연구팀은 전주지역 주간보호센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력훈련과 놀이형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근력·신체기능·근육량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놀이 요소를 결합한 복합훈련 방식은 참여도를 높였고,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활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해외 현장 체험, 연구 성과로 확장

전북대 간호대학, 일본 베델의집 해외 선진사례 기반 학습
김준혁 석사과정생, 정신간호학회서 발표 ‘우수 포스터상’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돌봄 현장을 직접 탐방한 교육 프로그램 학습 성과로 연결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글로벌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정신장애인의 자립 모델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학습한 경험이 연구로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준혁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정재원)이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5 한국정신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한 것. 김 석사과정생은 ‘교과서 속 정신간호가 현실에서 구현되다: 일본 베델의 집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의 회복지향 학습 경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전북대 간호대학은 지난 6월 8명의 학생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해 ‘베델의 집(Bethel House)’과 홋카이도 의료대학을 찾았다. 학생들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활동가 및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회복 과정에서 ‘관계’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실천 중심의 학습은 PBL 방식과 결합되면서 현장성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 석사과정생의 연구는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현장체험이 회복지향 간호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는 해외 우수사례가 실제 연구 성과와 수상으로 이어진 사례로, 전북대 간호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김준혁 석사과정생은 “연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준 정재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12·3 불법계엄 1년

“반헌법적 계엄, 다신 겪어서는 안될 교훈”

이남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 ‘민주시민교육’ 공약 제언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주

사태,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전북지역 교대·사범대와 협력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해 졸업 전 수업안 설계와 모의 수업을 통해 계엄·헌법·인권·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통해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장치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시민·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교실 뒤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교과서 뒤에는 민주주의를 살아본 지역의 기억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을 경험으로 소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제도로 잘차로 이해하는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다음으로,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장은성 기자

“민주주의 교육, 국가 과제”

노병섭 새참교육포럼 대표
“민주주의, 끝없이 지켜내고
배워야 하는 실천의 영역”



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병섭 대표는 “12·3 계엄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끔찍한 기록으로,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국가 과제로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하고, 경험해야 하며,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병섭 대표는 오는 10일 전북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감 선거를 공식화할 예정이 다. /장은성 기자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이하 새참교육) 노병섭 대표가 12·3 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교육은 국가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참교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켜내고 배워야 하는 실천의 영역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을 통제하려 했던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종식을 이뤄 민주주의를 완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집중 대면상담 운영

전북교육청, 22~29일…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서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시 집중 대면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 진로·진학센터에서는 오는 22~29일 평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교육지원청별 상담 장소는 △전주교

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3층 진로진학상담실 △정읍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남원교육지원청 1층 대입지원실 △김제교육지원청 3층 진로체험센터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http://www.jbe.go.kr/jirro)에서 ‘정시 집중 대면 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사전 신청 후 참여하면 된다.

상담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취소될 수 있다. 상담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0여 명이 참여하며, 상담 진행시에는 수능 성적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과 대학별 전형 요소, 지원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집중 상담이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6학년도 초등 교육 현장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주요 정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교육과정의 안정적 안착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1차는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관련 교육전문직원이, 2차는 연구업무담당 교사 및 전북교육청 교육과정 정책 지원단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방안’과 ‘2026학년도 초등 교육 주요 정책 안내’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 초등교육과정팀에서 제작한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설계·운영 도움자료’, ‘초등학교 학교 자율시간 전문가 되기 개정판’을 제공해 학교의 특성과 지역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전북미래교육연구원’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이뤄졌다. 관련 영상은 내년 2월 28일까지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기술지주 김정식 본부장
기술이전·사업화 카운터머싱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정식 본부장이 한국과학기술이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카운터머싱’을 수상했다. 김 본부장은 전주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의 특허·기술이전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오랜 기간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활동하며 대학의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은성 기자

